작년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2만7000명…5년 만에 최대

35.4% 증가해 목표 3000명 초과 달성 'V자 반등'

청년 신규 88.6%…청년인턴 채용도 13.3%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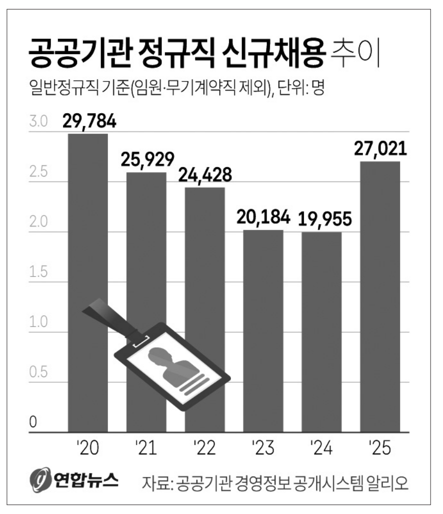
양질의 일자리로 손꼽히는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가 이재명 정부 1년차였던 지난해 5년 만에 최대인 2만7000명을 기록했다.

신규 채용 중 청년의 비율도 2020년대 들어 최고 수준을 나타내며 기록적인 청년 구직난 속에서 공공기관이 일정 부분 고용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44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일반정규직(이하 임원·무기계약직은 제외)은 전년보다 35.4% 증가한 2만7021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현원은 40만4143명으로 알리오가 통계를 제공하는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신규 일반정규 채용은 2020년 2만9784명에서 2021년 2만5929명, 2022년 2만4428명, 2023년 2만184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이어 2024년에는 1만9955명으로 1만명대로 내려왔지만, 지난해에는 'V자 반등'을 하며 목표(2만4000명)를 3000여명 초과 달성했다.

개별 기관으로 보면 신규 채용 규모가 가장 컸던 곳은 한국철도공사로 전년보다 100.6% 증가한 3201명을 신규 채용했다.

그 뒤로는 서울대학교병원(1355명·107.5%), 국민건강보험공단(1048명·14.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부산대학교병원(879명·59.8%), 분당서울대학교병원(803명·47.3%), 전남대학교병원(672명·194.7%), 충남대학교병원(623명·277.6%), 경북대학교병원(622명·81.3%)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채용 규모가 컸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47.3~277.6%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두고 촉발된 의정 갈등이 공공의료기관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면서 채용을 못 하다가, 정권 교체 후 기조가 바뀌면서 채용문을 크게 연 것으로 보인다.

억눌렸던 채용 수요의 단발성 해소인지, 중장기 확대 기조의 시작인지는 올해 채용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988명·64.7%), 한국수력원자력(433명·0.2%), 한국수자원공사(423명·66.5%), 한국남부발전(192명·52.4%) 등 에너지 관련 기업도 채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지난해 신규 일반정규직 중 청년은 2만3944명으로 전체의 88.6%였다. 2020년 이후 가장 비중이 컸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 속에 청년층이 그나마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징검다리인 인턴 채용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지난해 청년인턴 채용은 2만3459명으로 전년(2만700명)보다 13.3% 늘었다.

특히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채용형 인턴'의 규모(6656명)와 비중(28.4%)은 2020년 이후 가장 컸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목표를 작년보다 늘린 2만8000명으로 설정했다. 청년인턴 채용 계획은 2만4000명이다.

연합뉴스

광주시 경제정책협력관에 박충원 한은 부국장

경제정책 자문…시-한국은행 소통창구 역할

광주시는 9일 경제정책협력관으로 박충원 한국은행 부국장(2급)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경제협력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제 전문가다.

박 협력관은 지난 2002년에 한국은행원에 입사해 경제통계국, 금융시장국, 외자운용원, 통화정책국을 거쳤으며 통화신용연구팀장, 정책협력팀장 등을 역임했다.

박 협력관은 앞으로 1년간 국내외 경제상황 진단, 금융당국의 경제정책방향 공유, 광주시 경제 정책·이슈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며 광주시와 한국은행 간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신임 경제정책협력관의 통화·금융 정책 경험과 거시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광주시 경제정책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협력관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청년창업 지원, 기업 금융환경 개선 정책 등을 활발하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먹거리 독과점' 3개사 1500억원 추징

국세청, 53개 업체 3898억 탈세 적발…민생 추가 세무조사

리베이트를 통해 이익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가격 횡포를 일삼은 주류·가공식품 제조업체가 1000억원대의 탈루액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일으킨 53개 업체를 세무조사한 결과, 3898억원의 탈세를 적발해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총 3차 민생 세무조사 중 1차 조사 결과다.

기업들은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손쉽게 가격을 인상했고, 이에따라 이익이 늘어났지만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3곳의 탈세 규모가 가장 컸다.

오비맥주는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판매점 등에 1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광고비로 변칙 처리했다.

오비맥주는 또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용역을 받으며 수수료 약 450억원을 과다지급해 이익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와 수수료 과다 지급은 제품 가격 22.7% 인상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른 추징금은 약 1000억원이다.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 주기 위해 물류비 250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물류비용 상승은 제품 가격 25.0% 인상으로 이어졌고 아이들의 간식비 부담이 커졌다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추징액은 200억원대다.

라면 제조업체도 300억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외에는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장례업체가 인건비와 지급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년 동안 1년 매출의 약 97%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2·3차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불안 탈세자를 정조준하는 4차 세무조사에도 나선다.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6개), 농축산물 유통업체·생필품 제조업체(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3개) 등 총 14개 업체로 총 탈루혐의 액수는 500억원에 달한다.

4차 조사 대상에는 검찰 수사를 거쳐 담합 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청과물 유통업체가 올랐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는 9일 농협구례교육원에서 이광일 본부장과 기영윤 원장, 2025년 하반기 농축협 신규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농축협 신규직원 상생교육'을 실시했다.

코스피 3거래일 만에 4% 급등…5300선 턱밑

개인 순매도 역대 최대

코스닥 4%대 상승 마감

코스피가 9일 3거래일 만에 4% 이상 급등해 다시 5300선을 바라봤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09.96p(4.13%) 오른 5299.10으로 출발해 208.90p(4.10%) 오른 5298.04에 장을 마쳤다.

이번 달 들어 코스피 등락률은 2일 -5.26%, 3일 6.84%, 4일 1.57%, 5일 -3.86%, 6일 -1.44% 등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난주 코스피 고가(5376.92)와 저가(4899.30) 차이는 9.7%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485억원, 2조7121억원 순매수하고 개인은 3조2978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이날 개인 순매도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7440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지난주 말 뉴욕증시는 최근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3대 주가지수가 동반 상승했다.

특히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47% 급등해 5만0115.67로 사상 처음 5만선을 돌파했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1.97%, 2.18% 뛰었다.

엔비디아(7.87%) 등이 오르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5.70% 뛰었다.

미국발 훈풍에 국내 증시도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탔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29.14p(2.70%) 오른 1109.91로 시작해 46.78p(4.33%) 오른 1127.5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61억원, 4844억원 순매수했으며, 개인은 605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광주시, 식품위생 개선 업소에 융자 지원

광주시는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 설비·시설을 개선하는 업소에 식품진흥기금 3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주지역에 영업 신고(허가·등록)가 돼 있고, 위생설비·시설을 개선하려는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이다. 융자 이율은 1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금리 연 1%)이며,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때까지이다.

융자지원 한도액은 해썹(HACCP) 지정업소·지정 준비업소 1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 등 3000만원 이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광주시 누리집 공고 내용을 참고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을 구비해 영업소 관할 구청 위생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영업장 면적 100㎡ 미만의 영세업소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영업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승홍 기자

11~13일 광주시청서 '드림 만남의 날'

공기업 등 261개 사업장 현장형 직무 연결

총 450명 선발…10년간 청년 7940명 참여

광주시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 제19기 참여 청년과 드림터(참여 사업장)를 연결하는 '드림만남의 날'을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최한다.

'드림만남의 날'은 청년이 직무를 직접 듣고, 질문하고, 면접까지 이어갈 수 있는 현장형 연결(매칭) 행사다.

온라인 공고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실제 업무 분위기와 역할을 확인하며 나에게 잘 맞는 일경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전력거래소, 광주신용보증재단, 한국알프스㈜를 비롯해 공공기관, 지역 중소·중견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복지기관 등 261개 드림터가 참여한다.

참여 기관·기업은 각자 공간(부스)에서 상담을 통해 직무 내용, 근무환경, 필요 역량 등을 안내하고 청년들과 1대 1 맞춤 상담·면접을 진행한다.

시는 행사장에 광주시의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안내·상담받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청년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드림터 상담 일정과 일경험 제공 직무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http://gjyouthdrea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13일 오후 5시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한 후 '드림만남의 날' 현장에서 상담·면접을 진행하고, 13일 오후 9시까지 누리집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최종 신청서를 토대로 참여 청년과 드림터를 연결해 450명의 드림청년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결과는 오는 25일 광주청년통합플랫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 광주시 누리집에 각각 게시한다.

선발된 청년은 다음달 3일 공통교육을 시작으로, 7월까지 최대 5개월간 매칭된 사업장에서 일경험을 쌓게 된다.

김기숙 광주시 교육청년국장은 "처음 일경험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한 번의 만남이 방향을 잡아주고, 작은 자신감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며 "드림만남의 날이 청년들에게는 내게 맞는 일을 찾는 따뜻한 출발점이 되고, 드림터에는 함께 성장할 동료를 만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광주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적성에 맞는 일경험과 급여, 직무역량 강화 교육, 연계 활동 등을 지원하는 광주시 대표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 신규직원 교육

농협인 정체성·현장역량 강화

농협 전남본부는 9일 농협구례교육원에서 이광일 본부장과 기영윤 원장, 2025년 하반기 농축협 신규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농축협 신규직원 상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농협인 정체성(기영윤 구례교육원 원장) △존재감 있는 직원이 되는 방법(정찬석 영암낭주농협 계장) △선배와의 대화(김종구 구례농협 팀장) △농협인에게 유용한 홍보기법(좌동윤 제주시농협 과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주은 구례교육원 교수) △사고 예방(정범수 전남검사국 팀장) 등 신규직원들에게 도움 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신규직원들은 또 함께 채용된 동료들과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이자는 '농심천심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으고, 더 나은 농협인으로 성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전남본부는 지난 2023년부터 농축협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각 2회씩 상생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직원들이 농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상호 교류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승홍 기자